

# 무주군 문화가족의 날 행사 열려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1년 활동 결산·문화예술인 소통·교류... 시상식·전시·공연 등 진행

제33회 무주군 문화가족의 날 행사가 지난 4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과 최북미술관 1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문화가족의 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시상식,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가족의 날 행사는 '문화학교'의 1년 활동을 결산하며,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해마다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맹갑상 무주문화원 원장, 부문별 수상자, 그리고 문화원 임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행사장 입장이 가능했다.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은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상황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군민

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로 문화예술 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무주문화원 서원아 팀장이 무주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인홍 무주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무주문화원 이태훈 이사가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또 무주문화원 김동렬 감사가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공로패를 받았으며, 무주문화원 통기타 강사인 황혜연 씨가 전북문화원연합회장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무주 향교 김판근 전교와 정태평·이명진 씨, 문화원 회원 박신언 씨가 각각 무주문화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틈틈이

준비한 시낭송과 통기타, 서예, 민화 등 전시와 공연도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문화예술은 사람의 품격을 높이고 정서함양과 자기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분야"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임에도 무주군 문화가족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서 무주가 문화예술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무주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문화학교에는 동초수건춤(호남 살풀이춤)을 비롯해 통기타, 민화, 서예, 보타니컬(꽃이나 과일 주재료 페인팅 기법), 아크릴퍼어링(아크릴 활용한 작품) 등 총 16개 강좌가 진행됐으며 138명이 수강에 참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에게 수여하는 제22회 고창문학상 시상과 고창문인들의 연간 활동 작품을 엮은 제54호 고창문학 출판기념회가 사)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 주최로 지난 2일 고창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 최재언 시인, 제22회 고창문학상 수상

'나'를 노래하는 시집 '나, 있는 그대로'

고창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에게 수여하는 제22회 고창문학상 시상과 고창문인들의 연간 활동작품을 엮은 제54호 고창문학 출판기념회가 사)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지부장 나순희) 주최로 지난 2일 고창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고창문학상 수상자 최재언 시인은 고창 출신으로 2006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전북문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 시백회원으로 문학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세계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를 노래하는 시집 '나, 있는 그대로'를 펴냈다.

나순희 지부장은 "격조 높은 문학집 발간과 활발한 문학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앞장서고 군민 누구나 문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삶 속의 인문학 도시 고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는 이상인 초대지부장을 시작으로 창설됐고, 현재 나순희 지부장 및 80여명의 문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로서, 해마다 꽃무릇 시화전시, 문학상시상, 문학발간 등 꾸준히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고창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섬진강·강천산 전국 사생공모전 대상 '채계산 가는 길'

일반부 대상 김정숙 씨 선정·학생부 대상 박소영 학생 '입순여객' 수상

순창군은 지난 1일 제7회 섬진강·강천산 전국 사생공모전 일반부 대상에 김정숙(전북 남원)씨의 '채계산 가는 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진(전북 전주)씨의 '아름다운 시절'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생부는 박소영 학생(대구합지고 2학년)의 '입순여객'이 대상을, 김민서 학생의 '출렁다리와 나'와 신소유 학생의 '아름다운 강천산', 최모경 학생의 '나의 여름 이야기' 등이 금상을 수상했다.

섬진강·강천산 전국사생공모전은 순창군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섬진강을 비롯해 강천산, 채계산 등 대표 관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자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며 전국의 실력있는 화가부터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공모전의 수상자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달 간 작품접수를 통해 전국에서 일반부 90명, 학생부 378명 등 총 468명이 참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북 지역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며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서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군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미술학회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려 심사위원간의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해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심사를 맡은 박동열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 모두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어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심사위원 모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장 6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면서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 작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 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일반부 32점, 학생부 69점 등 총 101점이며,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학생부 대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군은 이번 공모전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순창읍 옥천골미술관에 내년 1월에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7회 섬진강·강천산 전국 사생공모전 일반부 대상 김정숙 씨 '채계산 가는 길'

## 양영훈 여행 작가 초청 남원관광정책 특별강연

남원시관광협의회, 7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서

남원시관광협의회는 베테랑 여행전문작가이자 파워 블로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영훈 여행 작가를 초청해 오는 7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원관광정책에 대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높아진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영훈 작가는 남원출신으로 30여년 전국 방방곡곡의 주요명소를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한 13권의 여행전문 개인저서와 20여권의 공동저서가 있다.

특히 여행전문작가로서 고향인 남원의 관광

현주소를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감각적인 홍보물, 원도심 활성화 전략, 성공하는 관광콘텐츠 전략 수립 등 여행작가가 말하는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도 이야기한다.

이번 특별강연은 선착순 100명 이하로 사전 예약 접수하며, 관광업계종사자와 회원 및 시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관광협의회(063-633-5353)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6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